

강 의 계 획 서

과 정 명	김응빈 작가와의 만남	강 좌 명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강의기간	2024. 9. 21.(토) 14:00~16:00	재 료 비	총 과정 인당	0원
강의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론형 <input type="checkbox"/> 실습형 <input type="checkbox"/> 이론+실습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의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학습자 참여학습(발표 등) <input type="checkbox"/> 실습 작업 <input type="checkbox"/> 개별학습(개인지도) <input type="checkbox"/> 수준별학습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외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의소개	생명에 대해 생물학자가 철학자가 나눈 융합적 대화 내용을 나누면서 관련한 생물학 지식도 시나브로 전하는 강의			
강의목표 및 개 요	자연은 생존을 위한 싸움터인 동시에 화합의 장이다. 생존을 위한 필연의 경쟁 속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꽃피우니 말이다. 비유로 말하자면,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얹히고설키면서 풍요로운 생명의 교향곡을 연주한다. 하나가 사라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서로 연결된 운명공동체이고, 따지고 보면, 인간도 이 그물의 한 올일 뿐이다. 이 강의에서는 앎(Knowledge)과 사유(Thinking)의 경계를 그어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갈라지는 생물학과 철학 간의 해석 차이를 알아본다.			
강 의 기대효과	생물학과 철학의 접점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융합적·창의적 사고력이 자랄 수 있다.			
주 교 재	서명 :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출판사 : 문학동네	저자 : 김동규, 김응빈	
	서명 : 생물학의 쓸모	출판사 : 더퀘스트	저자 : 김응빈	
부 교 재 및 참고도서				
비 고				

차수	강의주제	강의 및 실습내용	강의방법	준비물
1	예술작품 바이러스	예술작품이 어떤 고정된 사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를 만날 때에만 잠시 생명을 이어가듯이, 예술작품은 살아있는 인간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사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대화 내용 소개	이론	
2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는 매력	물이 맑을수록 그만큼 유기물 함량이 적다. 미생물 입장에서는 먹이가 부족해 생활난을 겪기에 십상이다. 그런데 한 해양 미생물은 이런 환경 조건은 아랑곳없이 잘도 살아간다. 심지어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일부를 만들지 못하는 결점을 지닌 채로 말이다. 그 비결과 그것이 주는 울림 소개	이론	